

리동화 선생

리동화 (본명 - 리와실리 페도로비치)
 선생은 1901년에 원동변강 유대인 자치주
 블라고베센스크 군 블라고블라웬노예 호에서 한
 생하시었다. 소련 출신 한국인들은 자기들중에서 사살리
 출신 한국인들에 대하여 논어하고 있으나, 이 한인들은 19
 세기 말엽에 한국 정부에서 러시아정부와의 협약에 의
 하여 약 천명의 한인 가족들을 원동변강 니콜스크 시
 부근에 배에 실어다가 이주시켰다고 하는데, 이 들어 몇을
 동안, 몇리나 왔는지 몰라 그들의 짐작으로 약 나팔리
 정도 왔다고 해서 이 한인들을 사살리 집단이라고
 한다. 이들의 특징은 한국말은 전혀 모른거다 (그렇지 않으면)

리동화

전혀 러시아어 어휘로 한국말을 대강 외우는 사람들이었다. 이로서 러시아는 참 러시아 언어들 똑같이 회화능 능숙하다. 리동화 선생도 여남에서 지극한 사발리 출신이다. 리동화 선생은 한국학교에 관한 전혀 단념분할 없었다. 리 선생은 항문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어 초급교과를 아깝하고 근소재지인 블라디보스톡에서 초중, 고중을 필한 다음 1922년 1월 1일 소련군에 동병되어 1925년까지 복무한 다음 1925년부터 1928년까지 소련군 학교에서 공부하고 1929년부터 1931년까지 계속 소련군대에 장교로 복무하다가 1931년에 소련군에서 제대되어 시베리아 대도시 이르쿠츠크시에 의학대학에서 5년간 공부한 다음 그 대학을 1937년에 필한 다음 다시 군대에 임대되어 군 의로서 복무하게 되었다. 1941년에 소련 조국전쟁이 시작되자 리동화 선생은 인공현장 제일 전선 사령부 산하 제 88 여단 중위로 배치되었다. 88 전후 정찰 여단은 다대부중군인들과 한국 말치산 대원으로 조직된 여단이 있었으나 이 여단에는 동족의 유명한 말치산 영웅 극보문과 김일성 대원장 대대로 정임되어 있다. 이 독립대대에서 군의 대대장으로 제1 리동화 선생은 항상한 인대대원 김일성 대대에 관심을 주신 복무하시었다. 리동화 선생은 여단 직속 독립대대장 겸 여단 중위로 보장으로 김일성 대대장에 배하여 군사계급이 인

그렇지 아니하면 완전한 러시아 어치로 한국말을 대강
발음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언어변에 들어가서 러시아
어 인들과 똑같이 회화하는 부류이다.

리동화 선생은 어삼에서 발음드린 사발티 출신
이다. 리동화 선생은 한국학교란 전혀 학교물건에
도 감별적이었다. 선생은 형을 불타고 스키라벤노에
서 초학교와 초중을 마감한다음 군노래지인 불타고

우시센스크에서 의학전문학교를 1926년에 졸업했다.

의학 전문학교 졸업어후 소련군에 군의로써 제복 1930
까지 복무한다음 소련군대내 모병적 일꾼으로써,
비리아 중앙도시인 일꾸스크시 의학대학 예과에타
전되어 일년간 공부한 다음 1931년부터 1936년
까지 대학 내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다음 그

의대 내과 연구원으로 재직 1937년 12월까지 복
류한 다음 소련군 군의로 복무하게 되었다. 1937년 8

월어후 소련 원릉변강 지역에 살고있는 전치 한인들
을 좋아하여, 기작크란 지역에 강레이쿠하였으나
리동화 선생의 가족은 제복 일꾸스크시에 살고 있었

으며 리 선생은 제복 군대에 복무하였다. 1938년
8월에 리 선생은 그 선생이 배속된 군대와 같이
원릉 변강 블라지워브스크에 이릉되어 왔다가 일

제 군대의 횡범으로 야기된 하산 권후에 참전하였다.

이때에도 리 동화 선생의 가족은 제복 이르꾸전크에
계했다 이때 다른 한인 가족들은 중앙아시아에 살거

들어와 아주 막대한 고통들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리동화 선생의 가족만은 일부분시에 살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평화롭게 학교에 다니었다. 하산 권속가 끝난 다음 초연군 25군단은 제 1 권선에 속하여 있던 몇개의 경찰구분대들과 중국 출신 팔로군 소속구분대들을 결속하여 초연군 88 경찰 여단은 1938년도에 조직하여 하하롭산군시 동남북군 약 607킬로미터 원격한곳 워드스로 논 삼림속에 주둔 하였다. 이 당시 이 여단의 책임군의 장 겸 군의소소장으로 한인 리동화 선생이 계셨다 당시 리동화 선생의 군사계급은 소좌였다. 여단이 조직되어 몇달이 경과한 다음 김일성이 영솔한 일제 대대 광원 배탈리산 부대는 동만주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다가 발레 군벌의 호위에 편입되었어 1940년 초만주국을 넘어 초연 영토에 정착하다가 초연국 경내에 북상하여 원릉을타지보산군도군 북군에서 야영-유형 생활을 하면서 체포원에이 일하였다. 이연 대한 소식을 정보 받은 주북은 여단장은 군단지부대에 보증을 언변하고 김일성 대대 상원등을 전복다 이등씩하게 자기 여단 일대대로 편입시켰다. 이것이 바로 1941년이였다. 한인대대가 여단에 편입된 것을 리동화 선생은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김일성 대위와 아주 친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상의 조성된 환경을 리용하여 초연 광복 경찰계통은 초연에 살고있는 많은 한인 청년들을 증병하여 모스크바에 주재하여 있는 경찰학교에서 훈련관직 강

석의 88 경찰 여단에 파견하곤 하였다. 그 결과
 유성철, 정복준, 김창국, 리종현, 최현, 김예림, 신봉남 등
 많은 동부대의 파견되었다. 그중 많은 동부들은 경찰의 투
 행중 일제에까지 이르러서 감옥에서 피살을 당하였다.

이 외에도 조선정부는 극대 혁명자 동원회 제흥, 극대공산당
 제흥 등으로 통하여 조선에서 큰이런 많은 간부들을 조선에 파견
 하여 사임하였다.

1945년 8월 이르자 조선 원동변방 하바롭스크의
 북근 와드스끄에 온데 소재하여 1941-45년 기간에
 군사 의무를 수행하던 88 여단은 상부로부터 해산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것은 중국과 조선에 대상으로 경
 찰 의무를 수행하던 것이 1945년 8월 15일에 두 나라가
 완전히 일제하에서 해방되자, 여단의 전후 의무가
 끝났기 때문이었다. 조선 원동 제1원선 사령부는 그 여
 단에서 복무하던 전체 항원들을 민족별로 갈라 한국인
 들은 조선으로, 또 중국인들은 주로 중국 여단장의 지휘하에 중
 국으로 보내주어야 하였다. 김일성 대대 성원들과 그 여단 여
 단 각부에서 복무하던 전체 한인들은 블라지워브스크에서
 근대 화물선 "백가호브"를 타고 1945년 9월 19일 (음력으
 로 8월 15일 추석날)에 원산항에 상륙하였다. 원산에 도착
 한 김일성 대대 소속 한인들은 원산 시 인민위원회 의 큰
 환영을 받은 후 그날 저녁으로 출발하여 9월 20일에 평
 양에 도착하였다. 이때 리동화 선생도 김일성 대
 대 성원들과 같이 동행하였으나 리동화 선생은 김일

성대대 성원은 아니었다. 다음 김일성이 쓰할린의
 임명으로 북한이 지도자로 들어선 다음에 공산당 북선
 분국이 조직된 이후 리동화 선생은 김일성의 알선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북선분국 조직부장 직책에 임명되었다.
 리동화 선생은 청년시대 학창생활을 하시면서 레닌
 공영회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시었고 다음 의학전
 문 학교를 졸업한 이후 당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시
 었다. 그러나 그 당시 당사업이란 당총회나 당위원회
 이 요구하는 당적위업이나 실행하는 정도였다. 리동화 선
 생은 자기 본선 사업에 대하여서는 아주 책임성 있게 자
 기 자체에 대하여서도 요구하였지만 학업 등에 대하여서도
 강한 책임적 태도를 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조직사업
 을 하던 것이다. 1945년에 일제가 패망되자 조선어해
 방 되고 전체 조선업 진흥에 힘써 해방을 주자, 조선언론
 은 자기 자체가 국가도 당도 조직하고 그를 영도 하여야
 했으나 누구나 그들을 영도하는 직책에서는 일한 경험 이
 없었다. 리동화 선생은 개성이 뚜렷하고 또 나옴도
 어지다 보니 당조직사업을 할수 없으리라고 김일성
 아는 종경하는 의미에서 리동화 선생을 중앙당 조직
 부장으로 임명하였다. 당조직지도부란 중앙당 각부
 들을 지도하는 부로서, 다른 부들은 조직부의 사업계획
 에 의하여 움직이게 될 원칙이다. 그런데 당사업
 경험이 적은 데다 조선말을 좀약하게 소유한 분
 이라, 또 그 외에 반노 분과 김창환이 같은 당정
 치 위원은 노골적으로 배척과 단념하였다.

1948년에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인민군대가
 완전한 계층 체계를 가진 뒤 리승화 선생은 자
 원적으로 당조직부를 내어 놓고 조선인민군 군의총
 국장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때부터 리승화 선생
 은 활기 있게 자기 사업들을 조직 전개하였다. 특히
 1950년에 남북조선간 동족상쟁이 발발하자 전
 선은 멀리 남한으로 나가게 되고, 또 후원을 위해서
 한 각사회의 국가들에서 조선 "해방" 전쟁을 응원
 하는 의미에서 야전병원들을 수백여 조직하여 북한
 에 파송하였었다. 이때에 리승화 군의총국장의
 역할이 아주 대단하였다. 우선 조선전쟁의 기본장병
 인은 소련인것만썬 모든 군의 계층 등제는 최근 사령부
 를 설치지 아니하고 직접 소련대들부터 흔히 결의한
 다음에 김일성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조선전쟁 3년간
 리승화 선생은 계속 전선 야전병원들에 돌아간
 나머지 그 험란한 항공기 기습과 포탄 폭탄이 될
 사어 없어 죽되 리는 전선 각종차길로 끌어들여 단
 나머지 몸을 내걸고 큰 고생을 하시였다. 북한에
 야기한 동족상쟁은 무한한 인적-경제적 자원
 을 없애버리고 전쟁이 시작된 그 자리에서
 정전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자
 북한 로동당은 인민들의 사상 검열나업으로써
 하였다. 이것은 김일성주의 반미화를 완성할
 목적이였다. 조선 로동당은 남한출신, 중국출신으로

다 참상 한다음 1956년 북위 소련 출신 간부들로
 창설하기 시작하였다. 이만큼대까지 사상 검출 사업은 김
 창만 반포라 거두가 총리로 하였다. 사람이란 총적 생
 활의 과정에서 기쁜 방향과 원칙은 한가지라 할지라도
 그 원칙과 방향을 달성함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적
 차이나 견해 차이가 있는 법이다. 소련 간부들은 조선
 영토에 들어 서리전에 북위 소련 공산당의 견고한 지시
 를 받은 것이다. 그것은 "북한에 나라 통일을 다하여
 공산당의 원칙을 꼭 지켜, 김일성은 품어 일하라는 것"
 이었다. 만일 북위 소련 출신 간부들은 두루나 다 통일
 하게 일하였다. 그런데 당 사상 검출 지도자들은 아득
 한 양적 원칙과, 인간 원칙으로 위반하려 애나한 사람은
 "소련 가족주의", "소련에 대한 상대주의", "소련식 관
 료주의" 등 논점으로 비판하면서 철적, 강적 등
 논에 유행사리를 붙여, "하북 실정을 본보기 때 북위
 하북 농촌에 내려가, 사상 제교양을 받은 다음 다시
 경쟁 하라는 것"이었다. '이상에 지적한 허무하고 죄도
 아닌' 죄명을 씌운 이후에 리동화 선생께 항하여서는,
 소련에서 나온지 십여년이 넘는 사이에 조선말을 전혀
 배우지 않고 모국어로 비약하게 설명하여, 물건 작성을
 잘하지 못한다는 "죄"를 더가하여 회의록에 기록하였던
 것이다. 만세 북위는 평양에서 살지 말고 농촌 내려
 가 보충 의사로 일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리
 동화 선생은 북한에서든 더 살수 없었다. 농촌으로 가족을
 데리고 내려간다는 것은 소련군대 중저승급에서 아무런
 예치로 받지 못하고 정례적 앞길에 완전히 막혀는 것이었다.

당시 리동화 선생은 소련군대 레대비와 연금만 받고 산다고 하여도 소련 중등간부 정례장비와 비슷하였다. 이동화 선생은 하소독 없이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을 통하여 소련 최고소베는 상임위원장과, 소련 무역성에 청원으로 제출하여 소련국적 회복과 소련 귀환 허가를 요청하였다. 1960년 7월에 리동화 선생이 제출한 귀국청원에 비문이 나와 동년 10월에 소련 모스크바에 전 가족이 귀환하였다. 리동화 선생은 모스크바 무역성에서 연금 제정에 대한 물건과 사색비정에 관한 물건과 돈을 받아가지고 카자흐 공화국 알타이에다에 귀환하여 도인위원회 부전북장으로 계시다가 1965년에 퇴근하시고 연금생활에 들어가 1980년 까지 묵사히 지우시다가 동년 2월 16에 별세하시었다. 현재 알타이에다에는 아들 형제와 딸 삼제가 살고있다.

15/11-2000г. Тамбов